

“만복대 올라 태초의 세계 보았네”



(4)

지리산 ③ (끝)

“어떻게 해야 그대와 함께 신선의 땅이 되어 기러기보다 더 높이 날아 우주 밖으로 노닐며, 눈으로는 태초의 세계를 보면서 우주의 기가 다하는 것을 보겠는가?”

이는 <동문선>에 실린 탁영(탁영) 김일손(金熙孫, 1464~1498)의 '속 두류산 기행'에 나오는 말이다. 지리산 천왕봉에 오른 김일손이 그의 친구 백옥(伯玉) 정여창(鄭汝昌)에게 한 말이다. 이에 대해 백옥은 “그렇게 될 수 없다”며 웃고 말

이다. 만복대에 이르는 길은 지리산의 다른 봉우리에 비해 비교적 간단하다. 지리산의 주봉이 북쪽으로 몸을 돌아올리는 성삼재에서 출발해도 반나절이면 되고 정령치에서 오르면 한 시간 남짓으로 충분하다. 시간이 넉넉한 사람이라면 노고단 산장에서 밤을 보내고 아침에 출발하여 먼저 종석대(1356m)에 올라 지리산의 남쪽과 서쪽을 조망해 보는 것도 빼놓기 아까운 즐거움이다. 아스라이 펼쳐지는 심진강 물줄기에 눈을 적시고 고개 넘어

천왕봉부터 노고단까지 도열하듯 서있고 심진강 물줄기며 무등산까지도 지척인듯

왔다지만, 예나 지금이나 지리산에 오른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꿈을 꾸게 되는 모양이다. 그 꿈은 함으로 우주적인 것이어서, 범인에게는 달 그대로 꿈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만일 백옥이었다면 “아무렴, 그것도 지금 당장!” 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물론 이 말이 가능하려면 “나를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불교적 시간관으로 보면 시계나 달력으로 분할할 수 있는 시간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흐름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흐름의 존재 양태는 '지금'이 순간 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순간순간이 곧 태초이다. 범성계의 한 구절처럼, “살아가 곧 끝없이 긴 시간(一念無量劫)인 것이다.”

만복대에 오르면 '태초'의 시간을 맞이하 수 있다. 하늘을 비집듯 일렁이는 연세꽃 사이로 정상(1433.4m) 오르면, 그곳에 태초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다. 막 태어난 햇빛과 바람이 몸을 부딪치며 은빛 군무를 펼치는 가운데, 멀리 천왕봉에서부터 노고단에 이르는 지리산의 등성이야 도열하듯 다가선다. 지리산의 심장이라 할 반야봉의 가장 웅장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곳도 바로 이곳 만복대

멀리 서쪽을 바라보면, 무등이 저기다. 가까운 듯 싶어 거리를 가늠해볼라치면 아득히 멀고, 구름에 몸 담고 있으니 높기도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그래서 무등산(無等山)일까? 이 땅 현대사의 비극 한 울음을 고스란히 안고 사는 산으로 보기에 그 모습이 너무도 경화롭다. 산의 덕(德)이란 게 바로 그런 것인 모양이다. 부디 그 덕스러움 다함 없어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언제든 편안히 기댈 수 있기를 빌어본다.

만복대에서 바라보는 지리산의 산주름은 공력 높은 화가의 거침없는 붓발 같다. 도로 때문에 만들어진 산허리와 생채기가 약간의 속기(俗氣)를 드러내긴 하지만 본연 만물은 그대로 천진(天真)이다. 변화하는 모습 또한 자재롭기 그지없어서, 천변만화라는 표현은 너무 진부하고 변덕스럽다는 말은 너무 천박하다. 이로 볼 때, 자연스럽다는 것은, 낱말이 곧 우주이고 우주 또한 낱말로 현현한다는 화엄의 세계관을 일컫는다고 하겠다.

만복대에서부터 백두대간은 지리산과의 작별을 준비해야 한다. 한시간 조금 못미치는 거리에 있는 정령치를 가로질러 고리봉(1248m)에 이르러서는 북서쪽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하기 때문이다. 봄이



◇만복대에서 북동쪽으로 이어지는 지리산의 능선. 거침없는 화가의 붓발처럼 본연의 천진스런 모습을 자연스럽게 드러낸다.

지리산의 계곡들

칠선계곡 천왕봉에서 발원한 물을 일천강으로 흘러 보내는 계곡이다. 설악산의 천불동계곡, 한라산의 탐라계곡과 함께 남한 3대 계곡으로 손꼽힌다. 삼천포도, 대륙

폭포, 칠선폭포, 선녀탕 등 시리도록 푸르고 함한 물길을 품어 안고 있다.

한신계곡 백무동의 상류에서 아우러진 우람한 바위가 계곡의 진수를 보여준다.

반야봉과 연하천 사이의 원시림을 누비며

아름다운 경치를 빚어내고 있다. 단심폭포와 병풍소, 탁요소와 오봉대 등의 절경을 간직한 곳이다.

피아골 가을 단풍이 빼어나게 아름다운 곳이다. 피아골의 단풍을 3홍(三紅)이라 하는데, 붉은 산과 그 빛을 담은 물빛, 그 속에 깃든 사람이 붉게 물들기 때문이다. 일

진왜란 때 왜군과 아군 즉 피아간의 공방이 치열했던 데서 유래된 이름이라 한다.

대원사계곡 한여름에도 아리도록 시원 물이 많은 사탕을 불러 모은다. 넓고 경사가 완만하여 기아시대부터 사람들이 삼의 터전으로 삼은 곳이기도 하다.

번 진달래 고운 바래동 능선을 눈길로만 더듬어야 하는 아쉬운 순간이기도 하다.

지리산을 벗어나면서 독자분들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해야겠다. 실제로 백두대간 취재진은 지리산을 일찍이 벗어났다. 그러다보니 취재를 한 시점과 글을 쓰는 시점이 다를 수밖에 없어서 현장감이나 계절감을 생생히 전달할 수 없었다. 신문 연재의 걸음이 발걸음과 다른 맛도 있지만 지리산을 한두 번에 소개한다는 게 아쉬워서 세 번에 걸쳐서 보니 생긴 일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능하면 백두대간 풍주와 연재의 걸음이 일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글=윤재학 기자
사진=손재식(사진작가)



◇만복대 정상 부근의 연세꽃길. 햇빛과 바람과 역새가 만나 몸을 부딪치며 은빛군무를 펼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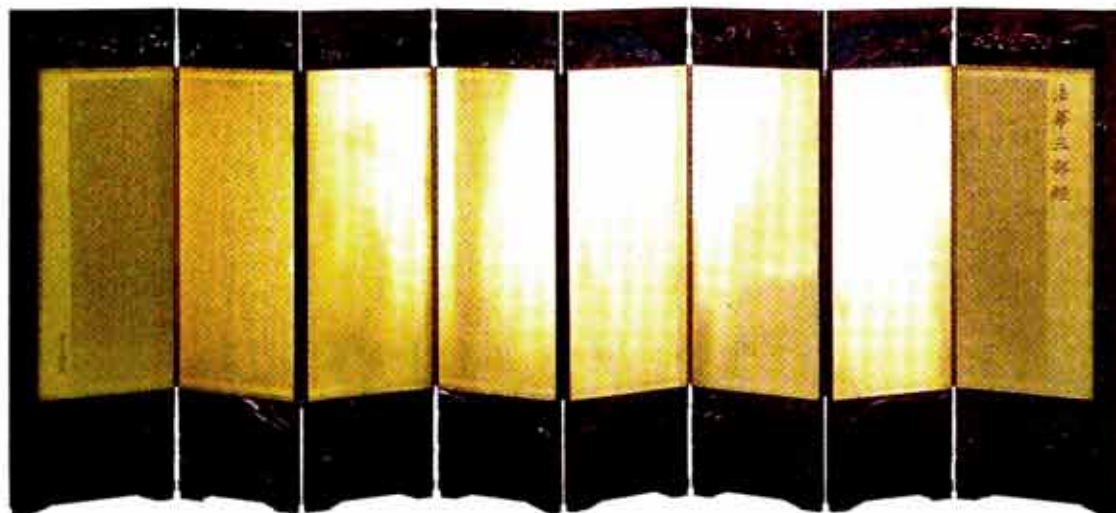
法華三部經 (법화삼부경) 金泥 (금니) 8폭조각병풍

시방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법(法)이며, 부처님께서 이땅에 오신 일대사 인연의 모든 진상을 밝혀 놓으신 법화삼부경이 오늘 이자리에 금니 광복조각 병풍으로 나타났습니다.

법화삼부경(法華經)은 개경(開經)인 무량외경 3종과 본경(本經)인 묘법연화경 28종과 결경(結經)인 불설 관보현보살행법경 1종을 말하며, 총 32종에 8만4천이 자로 되어 있습니다. 법화삼부경은 그 자체가 바로 부처님이시며 8만4천여자의 경문은 문자 하나 하나가 모두 법신(法身)의 광부처님임을 나타내는 경문으로서 이를 1년여에 걸쳐서 웅장하고 장엄스러운 대작불사(大作佛事)의 성품(聖品)으로 조성 승화시킨 본 법화삼부경 금니 광복조각 병풍은 지금부터 계불보살님과 특별한 인연을 맺게될 삼천 삼백 불자(佛子)에게 자자손손 대대로 소중하게 모실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들 모심은 곧 부처님 몸을 모신 것이 되며, 부처님의 정법(正法)을 잇는 사람이 될 것이며, 이를 모시게 될 불자는 그 공덕으로 그 시점부터 현재는 물론 대대손손으로 집안에 불은(佛恩)이 항상 함께 하시며 자손의 번창과 재물의 풍족과 가문의 번영을 구가하며 살게되는 큰 가피를 받게되는 선택된 불자(佛子)가 될 것입니다.

귀의 무량외경
귀의 묘법연화경
귀의 관·보현보살행법경



《규격》 높이 : 152cm 길이 : 366cm 무게 : 70kg

특징

- 법화삼부경 8만4천여 자 8폭 금속판 위에 한자 한자 양각으로 입체 조각되어 99.9% 순금으로 도금된 후 영구적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표면에 특수코팅 처리를 하여 때가 묻거나 변색되지 않습니다.
- 병풍은 한쪽마다 연꽃, 구름, 법륜, 하늘, 바다, 등 모든 구성요인이 생생하게 입체적으로 조각되어 있기 때문에 생동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 대대손손 집안의 기복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형이 가지 않는 목재와 특수재질을 혼합하여 조성되었습니다.
- 본 병풍 소장자는 부부이름이 금속판에 조각, 순금으로 도금한 후 병풍 뒷면에 부착되므로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선조님으로 길이 남게 됩니다.
- 본 병풍은 실용신안 및 의정부특허를 출원하였으며 한품 한품 조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됨으로 신청 후 받으시는데 1~2주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 인도방법은 손상의 우려가 있어 한품 한품을 원하시는 장소까지 본회에서 직접 오셔서 드립니다.



전면



후면

- 부처님의 지중한 공덕으로 이 세상에 오신 법화삼부경 금니 광복조각 병풍은 이를 모실 인연 있는 3천 3백명 불자가 이미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만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연락 주시면 카탈로그 및 설명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성 :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3층
(0335) 334-9490, 334-9491